인뉴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DEPARTMENT OF ANTHROP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제8호 2020년 봄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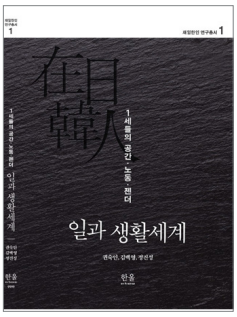
인류학과 뉴스

발행일 | 2020. 3. 31. 발행인 | 강윤희 편집인 | 강부성

2019학년도 학부생 학술문화제

2019학년도 인류학과 학술문화제가 학부생 자치회의 주도하에 2019년 11월 18일, 사회과학대학 신양관에서 진행하였다. 이번 학술문화제에서는 대만 타이베이 해외답사 보고 발표, 학부생 고전강독 연극(원시인의 정신세계)발표, 학부생 자유주제 및 개별연구 발표 등을 포함한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자유주제와 개별연구 발표에는 대학원생들이 총괄토론자로 참여하여 학과 내부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다.

신간 안내



재일한인연구총서 1, 일과 생활세계 – 1세들의 공간 노동 젠더

권숙인 김백영 정진성 공저, 한울. (2020.2.10)

20세기 초 일본으로 건너간 조선인들은 식민본국에서 어떻게 자신의 삶을 구축해 갔을까? 이 책은 집주공간, 취업구조, 여성노동에 초점을 맞춰 재일한인 1세의 생활세계와 실천을 구체적이고 다각적으로 그려낸다. 이러한 접근은 재일한인을 둘러싼 정치사회적 이념과 제도, 혹은 표상과 인식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1세들의 실제적 삶에 좀 더 입체적으로 다가가려는 노력이다. 이 책을 통해 거시적 억압구조 하에서도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엮어간 재일사회의 다양하고 역동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클로드 레비스트로스 상 수상

프랑스 학술원 Collège de France, 2019

2019년 인류학과 권헌익 초빙 석좌교수(영국 케임브리지대 트리니칼리지 석좌교수 겸직)가 프랑스 인류학계의 가장 영예로운 상인 클로드 레비스트로스 상을 수상하였다.

알리고 싶은 소식이 있으신 동문께서는 소식지 담당조교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후에 다음 소식지에 게재 하겠습니다. 더 나은 소식지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판된 인류학과 소식지는 인류학과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소식지 담당조교: 강부성, kbs0910@snu.ac.kr

2019학년도 전기 인류학과 학위 수여식

여러분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2019학년도 전기 인류학과 학위수여식'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개최되지 못하였다. 안타까운 상황을 대신하여 소식지를 통해 졸업생들의 소감 및 소식을 전하고자 한다. 인류학과는 이번학기 박사1명(안주영), 석사 8명(16아주설화, 16강지윤, 17전미영, 17이기병, 17유지현, 17전채린, 17최민진, 17김수경), 학사 10명(12김민규, 12성재규, 12신진수, 13국명표, 13이성은, 15이다혜, 15황혜림, 15이준현, 15주희연, 15성소진)을 배출하였다.

박사 06 안주영

안녕하세요? 저는 2020년 2월에 인류학과 대학원 박사과정을 졸업한 06학번 안주영입니다. 두 아이의 엄마인 저에게 박사학위는 커다란 도전이었습니다. 졸업을 할 수 있는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저는 한 가정의 엄마이면서 여성 인류학자가 되는 길이 무엇일까에 대해 늘 고민하며 매 순간을 살아왔습니다.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마다 저를 지탱할 수 있게 해 준 것은 인류학과의 교수님들, 선배님들과 동기들, 후배들, 그리고 소중한 가족들의 도움과 믿음이었습니다. 여성 인류학자로서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저에게 지속적으로 도움을 주고 희망을 길을 열어주신 인류학과 교수님들의 진심어린 조언과 많은 인류학도들의 응원이 있었기에 졸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지금도 논문을 쓰며 고군분투하고 있을 후배 인류학자들에게 저의 이러한 도전이 하나의 희망의 빛으로 여겨지길 바래봅니다.

석사 17 유지현

안녕하세요, 2019 후기 인류학과 석사 졸업생, 그리고 2020 전기 인류학과 박사 신입생 유지현입니다. 2017년 가을 인류학과 석사과정에 입학하던 날의 기억이 아직 생생한데 이미 졸업생이 되었다는 것도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심지어 박사과정 중이라니! 하지만 석사과정을 시작하면서 박사과정까지, 끝까지 가보리라 결심했기에, 석사 입학식 날의 제가 지금 이 순간으로 타임머신을 타고 온다 해도 아주 놀라거나 하진 않을 것 같네요. 하지만 박사과정에 입학하게 되면서, 석사 입학할 때와는 사뭇 기분이 다르더군요. 석사 때는 "어서 졸업하고 박사 해야지!", 했는데, 박사과정에 입학하면서는 "졸업하고 ...?? 졸업하면 뭐 하지??" 하게 되더군요. 박사과정 자체가 석사 때보다 워낙 길기도 하고, 또 정해진 길이 있는 것도 아니라서 막막한 기분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제가 하기에 따라 앞으로의 길이 정해진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지금의 제가 다시 시간여행을 해 박사 졸업식 날로 간다면, 스스로가 대견하고 자랑스러울 수 있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함께 졸업하고 입학하는 모든 학우들에게 진심 어린 응원을 보냅니다. 파이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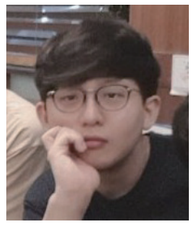
석사 17 전미영

안녕하세요. 저는 세운4구역이라고도 잘 알려져 있는 예지동 시계골목의 기술과 문화를 주제로 학위논문을 썼습니다. 인류학과 구성원분들의 크고 작은 정성이 모여 정말 무사히, 졸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지면으로라도 인사를 대신할 수 있어 기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재작년 겨울, 재개발 현장에 대한 문제의식과 일상생활 속 유·무형의 근현대 문화유산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현장에 들어갔습니다. 졸업 후에도 이곳에 대한 사회문화적 기록과 상공인 실태조사를 주제로 하는 후속 연구를 도시연대·SH도시연구원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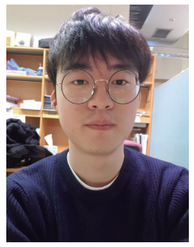
정성 들여 조사하고 기록했던 자료들을 현장의 도시계획가, 건축가, 그리고 무엇보다 연구참여자(시계골목 상공인)분이 활용하는 과정을 보면서 스스로 참 운이 좋다고 생각하면서도, 논문을 쓸 때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도 가슴 뛰는 현장에서 가치 있는 연구를 하면서 새로운 상상과 기획의 가능성을 열고 싶습니다.

학사 13 국명표



어차피 대학원에 입학했기 때문에 학교를 떠나간다는 의미에서의 졸업은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학부생이 아니라는 것이 제게 어떤 긴장감, 조급함, 불안함을 주는 걸 보니 그래도 학부는 인생의 유예기간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류학과를 졸업했으니 그에 대해 한마디 덧붙이자면, 인류학과는, 물론 '인류학적이지 않다'와 같은 치명적인 수식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분과들에 비해 훨씬 더 다양한 지식들을 유연하게 습득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주었습니다. 그래서 학부 시절 동안의 방황이 방황이 아닐 수 있었다면, 그건 전적으로 인류학을 전공한 덕택이었을 것입니다.

학사 15 이준현



현재 저는 가톨릭관동대학교 의학과 본과1학년으로 편입하여 공부 중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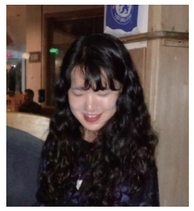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서 나름대로 잘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부학, 조직학, 생리학, 면역학 등 수많은 과목의 지식을 단 시간안에 숙지해야 하는 공부법은 인류학과 때와는 사뭇 달라서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와중에도 전 왜 이런 지식을 익히는지, 앞으로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 위해 이런 지식을 익히고 있으며, 이런 지식을 둘러싸고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참여관찰'하면서 나름대로 노하우를 빨리 익힐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면에는 인류학과 수업들, 인류학과 사람들과 교류하고 '인류학'했던 모든 순간들이 있다고 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배우고자 하는 대상과 내용을 무심코 수용하는 것이 아닌, 이 내용을 담고 있는 틀을 의심해보고 고민했던 학업은, 제게 어떤 내용, 어떤 집단에 속해서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갖게 해준 것 같습니다. 제 인생의 가치관도 바뀌게 된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이 일의 외연을 살펴볼 수 있는 렌즈를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소중한 인연들을 남겨두고 떠나야 한다는 것이 아쉽고, 제게 서울대학교 인류학과는 더 이상 없을 귀중한 경험을 안겨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학사 15 이다혜

안녕하세요, 인류학과 15학번 이다혜입니다. 저는 올 2월 졸업을 하고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과에 석사과정으로 입학해 현재 양산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꿈꿨던 한의사의 길을 다시 가게 될 줄은 4학년 때까지도 상상을 못 했는데, 학부 5년 동안 제가 하고 싶었던 거의 모든 것들을 해보면서 진로를 탐색한 결과 이런 길을 가게 되었네요. 의료인류학을 석, 박사 전공으로 하신 한의사는 많이 계시지만 인류학과 학부생 출신인 한의사는 거의 없으리라 생각되는 만큼, 인류학도라는 제 정체성을 논문과 임상에 잘 녹여내어 한국과 세계의 통합의학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인류학도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의 색을 잃지 않고 활동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학사 15 황혜림



대학에서 인류학을 공부한 것은 인생의 큰 행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해왔던 것에 의문을 던지고, 다른 사람들을 거울 삼아 스스로를 비추어보는 과정들이 학문적으로 뿐만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많은 변화를 불러왔습니다. 인간을 궁금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으면 언젠가 새로운 세상에 가닿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러한 마음들을 일깨워준 교수님, 친구들을 포함해 많은 분들께 감사합니다.

2020학년도 인류학과 입학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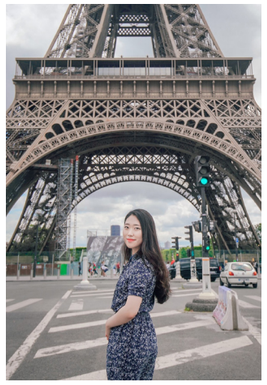
20학번 학생들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인류학과 학사 20학번 강민우

안녕하세요. 인류학과 20학번 강민우입니다. 한창 새내기 시절을 즐기고 있어야 할 이 시기에 캠퍼스에 발조차 들이지 못하는 상황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럼에도 인류학과에 20학번으로 입학하길 참 잘했다는 생각은 듭니다. 어릴 적부터 세계 전래동화에 관심이 많았던 저는, 그 관심을 '문화 콘텐츠'라는 분야로 구체화시키게 되면서 인류학과에 흥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문화라는 분야에 대해 심층적으로 연구하고 싶었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낯설게' 바라보는 시각은 어떤 일을 하든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전 이번 학기에 인류학의 이해 수업을 듣고 있는데, 'Nacirema' 지문 등을 통해 이런 인류학적 시각이 뭔지 확실히 지각할 수 있어 재밌었습니다. 일상생활 중에서도 지금껏 당연하다고 생각해 왔던 것을 의심하는 저를 보며, 저 자신이 벌써 어느 정도는 인류학에 스며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까면 깔수록 흥미로운 인류학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고, 말로만 듣고 있는 '현장 조사'를 직접 해 보고 싶은 바람도 생기는 요즘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인류학과 동기분들과 선배님들, 그리고 교수님들을 직접 만나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인류학과 석사 20학번 이세희



5년 만에 마주한 한국 사회가 낯설게 느껴집니다. 너무나 익숙하고 당연했던 한국의 모습들이 새삼 당연하지 않음을 느끼고, 이전에는 한 번도 의문을 품어보지 않았던 것들에 대해 질문하게 됩니다. 인류학을 공부하면서 매번 드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 내가 당연하다고 여겨왔던 것들이 사실 당연하지 않구나. 대학원에서 다양한 인류학적 담론과 이론적·분석적 틀을 더욱 공부하고 고민하며, 제가 새롭게 가지게 된 시각과 생각들을 정리하고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거라 기대해 봅니다.

미국에서 인류학을 공부하고 직장을 다니다가, 한국으로 돌아와 이렇게 다시 인류학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년 반 만에 다시 시작하는 공부라 설레고 걱정도 됩니다. 사실 석사과정 지원 전부터, 심지어 입학 후기를 쓰고 있는 지금까지도 많은 생각이 듭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공부라는 이유만으로 인류학을 계속해도 될까, 나는 인류학을 원하지만 인류학계가 날 원치 않으면 어쩌지, 나는 좋은 연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일까, 등등. 앞으로의 대학원 생활은 스스로에게 던졌던 그 물음들에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에 대학원 과정은 저에게도 매우 중요한 도전이 될 것 같습니다. 도전이라는 것이 항상 즐겁지만도 않고, 때때로 괴롭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류학은 항상 제가 안전지대(comfort zone)에서 걸어 나올 수 있게 도와주었기에, 이번 도전도 겸허히 받아들이려 합니다.

인류학과 박사 20학번 김수경

회사를 그만두고, 대학원에 들어와 인류학을 공부하기 시작한 지 어느덧 3년이 지나, 박사과정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류학이 대체 뭐야?"라는 익숙한 질문에는 여전히 제대로 된 답변 하나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학부 시절 기계공학을 전공했을 때는 아무도 제게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없었던 걸 생각해보면, 인류학처럼 자기증명을 요구받는 학문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영원히 정의될 수 없을 것만 같은 모호함에 인류학에서만 느낄 수 있는 인간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내 주저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를. 입학 소감이라는 이 짧은 단상의 끝에서 저는 스스로에게 작은 다짐을 해 봅니다.

해외석학 초청 강연 및 전문가초청 세미나

일시	주제 및 발표자
2019.12.06	**주 제** 지역사회 가족서비스 전달체계의 현황과 과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발표자** 진미정(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2020.01.29	**주 제** "진화와 인간행동"(존카트라이트, 2019, 에이도스) **강연자** 박한선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2020.01.31	**주 제** "여성 연구자, 선을 넘다: 지구를 누빈 현장연구 전문가 12인의 열정과 공감의 연구 기록" **강연자** 구기연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외 여성연구자들
2020.02.03	**주 제** "무지개는 더 많은 빛깔을 원한다"(한국성소수자연구회, 2019, 창비) 강연자 김현미 (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
2020.02.13	**주 제** "부분적 연결들"(매릴린 스트래선, 2019, 오월의봄) **강연자** 차은정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제 7회 인류학 오픈포럼

인류학 오픈포럼은 인류학과 졸업생 및 인류학에 관심을 가지고 활발한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명사를 초청하여, 인류학의 연구방법 및 문제의식을 현실에 응용하고 공공재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행사이다.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BK21플러스 사업단의 후원으로 매학기 주제와 장소를 달리하여 개최된다.

주제 인류학으로 떠나기!: "여행"과 "방송"의 현장으로
서현정 (뚜르 디 메디치 여행사 대표) "나는 왜 여행을 만드는가"
정현경 (KBS PD, 걸어서 세계속으로 등 연출) "무엇을 볼까, 어떻게 만들까"

일시 2019년 11월27일(수) 16:00~18:30

장소 연세대학교 연희관 401호

'한국기독교와 인류학' 워크숍

2020년 1월 31일부터 2월 1일까지 〈한국기독교와 인류학〉 워크숍이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영원홀에서 진행되었다. 이 워크숍은 종교인류학이 기존 '민간신앙' 연구에서 '기독교인류학'으로 전환되는 세계적 흐름 속에서 냉전 이후 한국기독교를 둘러싼 종교지평을 검토하기 위해서 기획되었다. 워크숍은 인류학과 학과장인 강윤희 교수의 축사를 시작으로 권헌익 교수(캠브리지대 인류학과)의 "냉전 종교문화사: 한국의 기독교인류학 연구에 대한 개관" 발표 등 총 13명의 학자들이 양일간 한국기독교의 여러 이슈들에 대한 논의를 이어나갔다, 워크숍은 기독교와 샤머니즘, 한국전쟁과 기독교, 현대 한국사회와 기독교, 해외선교와 북한선교, 다문화와 종교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이 워크숍은 세계 기독교인류학의 흐름에서 한국기독교에 대한 인류학이 기여할 수 있는 지점을 역사학, 신학 등 인접학문과의 대화를 통해 모색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워크숍에서 논의된 내용은 금년 중에 단행본으로 정리되어 발간될 예정이다.

소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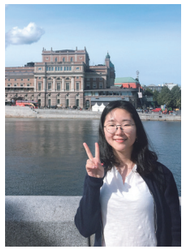
아우라_조성효

안녕하세요. 인류학과 조성효입니다. 2019년 2학기에도 아우라가 미약하지만 꾸준히 명맥을 유지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 짤막한 후기를 올립니다. 제가 아우라에서 활동한지도 벌써 2년이 넘었네요! 2018년에 아우라에 처음 들어가서 1년간 알차게 활동한 이후, 당시 모임장이 아우라를 더 운영하기에 사정이 어렵게 되어 해산될 위기에 처했던 아우라를 잃고 싶지 않아 그 뒤로 2019년 한 해 동안 제가 모임장을 맡아 책 읽는 소모임을 유지하였습니다. 과제로 읽어야 하는 전공서적만 가득한 대학생의 삶에서 아주 자율적으로 읽고 싶은 책을 읽기에는 의지도 부족하고 독후 활동도 딱히 할 수 없었던 게 아쉬웠던 저에게 아우라는 대학 생활에서 꼭 지키고 싶은 쉼터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 그리고 저와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이번 학기 아우라도 책과 간신히 닿아있는 삶을 유지하는데 성공했습니다. 학기 중에는『예술과 그 가치(매튜 키이란 저)』를 읽고 칸트의 예술비평이론과 가치상대주의에 관해 토론했으며 학기말에는 김재석 교수님께서 흔쾌히 아우라의 지도교수 역할을 맡겠다고 제안해주셔서 아우라의 미래에 관해 논하는 즐거운 식사자리를 가지기도 했습니다. 아우라에 배정된 지원금으로는 한 학기 간 읽고 싶은 책 두 권씩을 구매하였으니 저번 학기도 매우 만족스러운 아우라였다고 평가하고 싶네요. 함께 해주었던 구성원들 모두 감사합니다. 이번 학기도 책과 함께 살아갑시다!

교환학생

스웨덴 웁살라대학교 교환생활_ 17학번 김지원

저는 지난 2019-2학기 스웨덴 웁살라 대학교로 교환을 다녀왔습니다. 벌써 까마득하게 느껴지는 스웨덴에서의 제 삶은, 간략히 친구들, 학교 수업, 그리고 여행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교환 생활 내내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웁살라 시 자체가 국제학생 비중이 높은 대학 도시다 보니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부드럽게 섞이는 분위기가 있었고, 덕분에 저 또한 시시콜콜한 일들까지 공유했던 코리도 메이트들, 그리고 수업시간에 만나 친해졌던 친구들 등 귀한 인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영미 문학이나 근동 고대사 등 관심 있었던 분야 과목들을 들을 수 있었기에 수업에서도 즐겁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학기 중에 여행을 자주 다니려고 노력했습니다. 지금도 친구들과 어울려 가볍게 배낭을 메고 유럽 곳곳을 누비던 기억만큼은 생생합니다. 결론적으로 6개월간의 교환 생활은 유럽 땅에서 이방인인 아시아인인 동시에 세계 시민이라는 정체성을 발견하는 계기였습니다. 아직 그간 얻은 깨달음들을 어떻게 활용할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제 인생에 큰 변화를 줄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렇게 소중한 기회를 주시고, 내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스웨덴 웁살라대학교 교환생활_ 17학번 황윤하

2019학년도 2학기, 한 학기 동안 스웨덴 웁살라의 웁살라 대학교에서 교환학생 생활을 하다 돌아왔습니다. 북유럽의 여유로움을 느껴보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으로 시작한 교환학생인데, 익숙한 환경을 떠나 해외에 나가 살아보며 예상했던 것보다 뜻깊은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교환학생 생활에 앞서 가장 걱정이 됐던 부분은 바로 외국어로 생활을 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다행히 웁살라 대학교에서는 국제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잘 마련하여 수준 높은 수업을 영어로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덕분에 한국에서는 성적이나 일정 때문에 듣기 망설였을 스웨덴의 역사나 미국의 인종 문제 등에 대한 수업을 영어로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영어로 진행하는 토론에 익숙하지 않아 당황했지만, 곧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내 의견을 표현하는 실력을 길러 무리 없이 학기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환경에서 사람을 사귀어야 하는 상황이 되자 오히려 처음 만나는 이들에게 용기 내어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특히 웁살라 대학교의 학생자치기구인 Nation 제도를 이용하여 여러 행사에 참여할 기회를 얻을 수 있었으며 학생들이 운영하는 카페나 펍에서 친구들을 만나며 소중한 추억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스웨덴에서 돌아와 한국에서 학기를 시작하는 지금에 웁살라 대학교의 교환 생활을 기억하면 낯선 공간에서 움츠러들지 않고, 용기 내어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학기 동안 멋진 경험을 할 수 있게 되어 몹시 감사한 마음입니다.

참여대학원생 학술논문

박경민 (박사과정)

학 술 지 『비교문화연구』 25권 2호(2019.12)

논문제목 일본의 국제화 정책과 지역의 '국제화하기': 정책 인류학적 관점

참여대학원생 국제학술대회 참가

American Anthropological Association(캐나다, 2019.11.20.)

발 표 자 윤석주(석사과정)

발표주제 Forming the Webs of Care: An Ethnographic Study of Spousal Caregiving for a Patient Receiving Life-Sustaining Treatment

발 표 자 이경빈(석사과정)

발표주제 'Oral history' of 'Camptown women' : Subalternity and the representation

발 표 자 이예성(박사과정)

발표주제 The Loss of Siblings by a Social Disaster

한국민속학회 2019 동계학술대회(한국, 2019.12.14.)

발 표 자 김재완(석사과정)

발표주제 한국 종교민속으로서 한국 기독교

발 표 자 이하얀(박사과정)

발표주제 민간지식의 공유단위로서 마을개념에 대한 재고

국제학술대회 개최-한국민속학 2019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BK21플러스 사업단과 한국민속학회가 공동개최한 한국민속학 국제학술대회가 "코리언 민속 연구의 동아시아 네트워크 구축과 통합"를 주제로 2019년 12월 13일부터 14일까지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에서 개최되었다.

본 학술대회에서는 한국, 일본, 중국, 카자흐스탄과 독일에서 모여든 총 14개 패널에 20명의 발표자와 토론자가 코리언 디아스포라 연구의 다양한 사례를 공유하고 논의하는 가운데 코리언 민속의 '공통성과 특수성'을 키워드로 삼아서 동아시아 네트워크 구축을 도모하는 귀중한 장이 되었다. 본 사업단 참여대학원생의 발표는 아래와 같다.

- 이하얀(박사과정) 민간지식의 공유단위로서 마을개념에 대한 재고
- 김재완(석사과정) 한국 종교민속으로서 한국 기독교
- 주도경(박사과정) 100년 전의 로또 '계통'-서울대학교박물관 소장 유물 계통에 관한 연구

언어학습 프로그램 참가 지원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BK21플러스 사업단은 부산외국어대학교 특수외국어교육원과 MOU를 체결하여 본 사업단의 참여대학원생들이 부산외대 동남아언어 겨울캠프에 참여하여 원활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본 사업단의 참여대학원생 박경민(박사과정)은 2020년 1월 6일부터 18일까지 베트남어 중급 강좌 집중캠프에 참가하여 현지조사 예정지역의 언어를 익히는 한편, 동남아 지역의 다양한 분야를 연구하는 전문가들과 소통하고 교류하는 기회를 가졌다.

학회 및 연구 활동

강윤희

2020.1 부터~ 국제학술지 'Journal of Sociolinguistics', 부편집장 (Associate Editor)

김재석

2019.9 학술회의발표 및 초청강연 'EAAA-East Asian Anthropological Association' (전북대학교)

2019.11 학술회의발표 및 초청강연 '통일기반구축 연합학술대회'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이현정

2019.11 학술회의발표 및 초청강연 'SNU GSPH 보건정책관리 수요세미나' (서울대 보건대학원 보건정책관리전공)

2019.12 학술회의발표 및 초청강연 '재난 사고사의 유족 치유상담과 웰다잉 정책방향' (웰다잉시민운동)

2019.12 학술회의발표 및 초청강연 '인구변화와 한국사회의 미래' (서울대 사회과학대학, 서울대 경제연구소 분배정의연구센터)

정향진

2019.10 학술회의발표 및 초청강연 '남북 평화시대를 여는 시민 어울림 한마당'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여성개발원, 사단법인 지혜로운여성)

2019.11 학술회의발표 및 초청강연 '2019 한국문화인류학회 추계학술대회' (한국문화인류학회, 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 공동체문화연구사업단)

2019.11 학술회의발표 및 초청강연 '통일기반구축 연합학술대회'(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9.12 학술회의발표 및 초청강연 '사회혁신교육 성과공유회' (서울대학교 사회혁신교육연구센터)

2020.1 현지조사 및 연구회의 (일본-조선대학교)

Olga Fedorenko

2019.10 학술회의발표 및 초청강연 'Columbia University The Center for Korean Research Talk Series' (Columbia University The Center for Korean Research)

2019.11 학술회의발표 및 초청강연 'The 12th Kyujanggak Symposium for Korean Studies'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2019.11 학술회의발표 및 초청강연 'NYU MCC Lunchtalk Series' (New York University, Department of Media, Culture, and Communication)

2019.12 학술회의발표 및 초청강연 'Topics In Korean Studies: Cosmopolitan Desires And Korean Imaginations: Guest Lecture' (New York University, East Asian Studies Departiment)

논문 및 저서 출판

권숙인

2020 『재일한인연구총서 1, 일과 생활세계 - 1세들의 공간 노동 젠더』한울 (김백영 정진성 공저)

김재석

2019 "포스트사회주의적 변화에서의 민간(民間)의 역동성과 선행성(先行性): 중국 레이저우만과 북한 신의주 지역 비교 연구"『통일과평화』

이현정

2019 "4.16교실 존치 투쟁과 새로운 장소성의 생성: 피해자성의 기억론을 넘어 인격성의 기억론을 향하여"『기억과 전망』

2019 "재난 후 친족 간의 관계 양상과 친밀감에 관한 연구: 세월호 참사 유가족의 경우"『가족과 문화』

정향진

2019 『캠퍼스 임팩트 2019: 서울대학교 사회혁신 교육 프로젝트』 푸른길(공저)

2020 "북한 조직생활 의례와 사회적 장의 정치화." 한국문화인류학 53(1)

Olga Fedorenko

2019 «Реклама, цветок капитализма»: Эстетика и политика рекламы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Advertising, the Flower of Capitalism:" Aesthetics and Politics of South Korean Advertising] [In Russian]

발전기금 모금 안내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인류학과에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주시는 데 대해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인류학과는 1961년 고고인류학과로 출발하고 1975년 인류학과로 독립한 후 그간 학과의 내실을 다지는 데 역량을 집중해왔습니다. 그 결과 인류학과는 상대적으로 소규모이기는 하나 문화적 감수성과 다양성에 대한 비판적 안목을 지닌 인재를 양성하는 학과로 자리매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2016년부터 교육부로부터 4년 6개월 동안 BK21+ 사업비를 지원받아 대학원생들의 장학금이 대폭 확대되고 연구지원을 충실히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인류학과는 크게 도약하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한국연구와 동아시아연구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거점 학과, 그리고 한국사회와 타사회 간 문화소통 및 한국문화를 융성시키는 데 기여할 글로벌인재를 키워나가는 학과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이러한 인류학과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출연해주시는 발전기금은 인류학 훈련에서 꼭 필요한 실험실습, 현지조사 실습, 해외답사, 해외장기 현지조사, 현지어훈련, 학술지출판 등 학생들을 교육시키고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발전기금 모금에서 소액기부와 월정액기부를 특히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의 정성과 참여로 인류학과가 나아갈 길을 응원해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학과장 **강윤희 교수**

*발전기금 참여신청서는 본 소식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발전기금 담당조교 : 강부성 (02-880-6419 kbs0910@snu.ac.kr)